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5.(수) 10:00 (2024. 6. 5.(수) 석간)

일자리+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요

- 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협단체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협조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5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현재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하여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지원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라고 당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지은 (044-202-7412) 임수훈 (044-202-7475)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간담회 개요**

1. 개요

○ **(일시)** ‘24.6.5.(수) 10:0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2. 참석자

○ **(우리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고용지원정책관 등

○ **(중소기업 협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소상공인연합회

3. 주요 내용

○ **일·육아지원제도 정책 현황 등 설명**

○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관련 현장 의견수렴**

○ **일·육아병행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

4.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0:00~10:05	(5’)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10:05~11:00	(55’)	▪ **간담회** •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방안 논의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청취	중소기업협단체 협회장 등

붙임 2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중소기업 협단체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일·육아지원 관련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드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무려 18년 전에 세계적인 인구석학인
데이비드 콜먼교수는 우리나라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이런 국가소멸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확충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저출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하는 부모들은 제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일하는 부모가 좀 더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일·육아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주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와 함께
"일·육아양립 캠페인"을 해주신다고 전달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